중, 세속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1539년 시의회의 결의를 따라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그동안 인간을 섬겼더면 유감이 있으려니와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면서 개혁자로서의 전진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제네바는 그를 추방한 3년후 다시 초청함으로 그는 제네바에 돌아와 못다한 개혁에 전진할 수 있었다.

진리를 위한 박해와 수모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한다. 우리들이 그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복이 있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아5 : 10,11).

한국교회에 두려움 없는 개혁의 전진이 멈추어진 듯 보인다. 세속주의, 명예주의, 물량주의가 교회안에 자리를 잡는 듯 보인다. 교회안에 죄와 불의를 권징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 "침묵이 금"이라는 세속윤리에 젖어가는 듯하다. 도전보다는 적응(accomodation)이라는 세속적 생활의 철학을 쫓아가고 있는 듯하다. 교회의 현실을 다시 살피고, 개혁의 뜻을 다시 찾아야 할 때이다.

개혁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16세기에도 쉽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에게 개혁은 쉽지 않다. 쉬운 길들이 있다. 하나의 길은 조용히 환경에 적응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완력으로 혁명을 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혁명의 길은, 부패와 몰락을 다시 가져오기 마련이다. 개혁의 길만이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혁명은 절망에서 나오고, 또한 절망이외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渡來)케 하는 일이기에 이는 언제나 소망을 안겨다 주는 길이다.

개혁은 결코 부정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것을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다. 개혁의 배후에 있는 강한 동기는, 이것 저것을 반대하고 싸우려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는데 있다. 그런고로 개혁자들은 두려움 없이 전진을 하는 것이다. 개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할 모든것은 구원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가 다시 오실때, 그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런고로 개혁은 이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요 생활이다.

고려신학보 제14집(1987년 11월) pp.93~100

# 현재의 한국교회를 개혁하기에 대하여

박 도 호**

요즈음 한국 국민들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계속하여 생각하면서 사회와 정치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매수,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생기는 부정직과 족벌세력형성을 어떻게 척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와 정치적 제도가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더 공명정대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들 거의 대다수는 이제 한국이, 민주화 곧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심각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속에 있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는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만 이른다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가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더욱더 받아서 51퍼센트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공적으로 반대하므로써 기독교적인 제도와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제도이겠읍니까?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나라만을 선포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찾았던 진리, 다시말하면 우리 시대의 문제와 제도에 적용할 성경적인 원리만을 깨닫고 쓰면 되겠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실용주의적인 사상이나 방법이 아니고, 그대신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안에서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6세기의 루터, 19세기으 Abraham Kuyper, 20세기의 J.G.Machen, Klaas Schilder, 그리고 한상동

**하바드대학 졸
화란 캄펀 신학대학원 졸
현 신학대학원 교수

목사님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사회이든 교회이든지 어떤 곳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읍니다.

16세기에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서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루터는 "Sola Scriptura" 즉, "오직 성경으로"란 말로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 즉 "Sola Fide"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언함으로써 교회개혁을 시작했읍니다.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Nederlandse Hervormde Kerk라는 화란 국가 교회에 있는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성경의 무오성을 옹호하면서 교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싸웠읍니다. 카이퍼는 특별히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교회권징"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키려고 국가교회와 분열할 수 밖에 없었는데 Herman Bavinck의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와 연합하여 De Gereformeerde Kerkerken in Nederland라는 화란 개혁교회를 1892년에 수립하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이와같은 교회개혁의 운동을 살펴볼 때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단언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지도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파가 1929년에 총회에서 Princeton 신학대학원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결정을 했을 때 J.G.Machen이 Princeton을 떠나서 Westminster신학대학원을 세웠으며, 나중에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큰 장로교파와 결별해가면서 1936년에 정통적 장로교회라는 성경을 믿고 참다운 미국 장로교회가 존속하게 했읍니다.

19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Klaas • Schilder가 De Gereformeerde Kerken라는 화란개혁교회안에서 교회개혁을 위하여 노력을 했읍니다. Schildes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성경을 강조하면서 설교, 언약, 은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발견한 통찰력이 있는 새로운 대답을 했는데, 당시의 카이퍼의 제자들이 스킬더의 사상을 배척함으로써 결국 1944년의 총회는 스킬더가 카이퍼의 모든 사상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킬더를 교수와 목사 직위에서 면직시켰읍니다. 그래서 1944년 8월에 스킬더와 다른 면직된 교수와 목사들, 그리고 스킬더의 사상을 성경적인 사상으로 여기고 있던 교인들이 함께 De Gereformeerde Kerken(Vrijgemacht)이란 화란 자유개혁교회를 화란의 참다운 교회로 존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한상동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1930년대에 한목사님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고, 우상숭배를 금하는 기록된



말씀의 명령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언했는데 결과는 고난과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 그리고 고려파를 세웠던 것이었읍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읍니다.

이 모든 교회개혁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또한 항상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기위하여 "Sola Scriptura" 즉 "오직 성경"으로 표현된 말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또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사랑하며 순종할 의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시대의 문제를 성경의 내용으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시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할지라도 모든 시대의 구체적인 문제는 종종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항상 똑같은 이단이 계속하여 똑같은 그릇된 교리를 선전해도 우리시대, 또한 우리 한국 상황은 A.D. 1987년에 특별한 위험, 그리고 특별한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지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살펴볼 때 많은 장점을 볼 수 있고 또 약점도 볼 수 있읍니다. 장점 중에서 하나는 고신파나 합동파에 있어서 무오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실한 기초 위에 참다운 교회를 건설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신"과 "합동"이란 교파를 언급할 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 Ⅰ. 교회의 통일성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때 첫째로 교회의 통일성을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즉 ἐρωτῶ)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즉, διὰ τοῦ λογου αυτῶν) 나를 믿는 사람들도(즉 τῶν πιστευσοντων ···εἰς ἐμέ)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즉 ἵνα παντες ἐν ὦσι)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ἵνα ὁ kοσμος πιστεύση)라고 하셨읍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으로 : "나는 이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통일성(즉, πάντες ἓν )과 세상이 믿게 되는 것(즉, ὁ κοσμος πιστευσῃ )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인간의 흩어진 상태들과 교회의 하나가 되는 형태와 비교하며서 "한 몸으로 연합한" 교회의 통일성이 잃어버린 세상의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칼빈자신이 당시의 국제적인 교회관계에 대해서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552년 4월에 영국교회의 대주교이었던 Thomas Cranmer에게 편지를 보내 주었는데, 이 편지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가 서로 싸우는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이 당시의 가장 심각한 악 중의 하나라고 했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 17장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볼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알려주는 교제를 가리키고 계셨읍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그리고 서로 그리스로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이 믿게 될" 가능성은 생길 수 있읍니다. 한 몸이 된 교회는 한 몸으로 세상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볼 수 있읍니까? 1951년에 세웠던 고려파는 1960년에 합동파와 이러한 구체적인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했읍니다만은, 1963년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신파의 교회들이 연합한 교파와 분열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주의적인 장로교파들이 더욱더 분열되고 더욱더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읍니다. 모든 지역교회마다 자기의 문제만을 다루고 다른 지역교회 또는 교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통일성에 대한 주제를 언급할 때 대개들을 수 있는 대답은 "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지만 인격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적인 하나됨을 유지하고 어느정도 합력하면 되겠읍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정도 합력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참다운 교회의 표징을 나타내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주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더욱더 힘쓰고 교제를 구하며 전의 문제와 죄악을 잊기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고 또 계속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 나는 한상동에게, 나는 박형룡에게, 나는 박윤선에게"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전 3장 5절에 있는 말과 같이, "그런즉 아볼로는(또는 한상동은) 무엇이며 바울은(또는 박형룡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 할 수 있읍니다.

현재 교회개혁은 통일성을 뜻합니다.

## 2. 신앙고백의 중요성

둘째로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다른 하나는 신앙고백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신앙고백서를 구상했읍니다. 예를들어 루터는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썼고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과 불란서 신앙고백을 썼읍니다. 그들의 목표는 목사들과 장로들 뿐만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고백을 배우면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럼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개괄함으로써 신앙고백은 교회의 신앙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우리의 장로교회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트 대·소 유리문답은 채택된 신앙고백입니다. 1647년에 런던에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은 칼빈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것인 줄 압니다. 장로교회에서 영 적인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조건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또 이 웨스터민스터 표준도 알고 그것과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목사들, 장로들, 또한 집사들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잘 배워야 되고 주요한 점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파는 분명히 신앙고백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사를 살펴볼 때 장로교회안에서 이 신앙고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읍니다. 1820년대 미국에서 C.G. Finney가 회개했을 때 칼빈주의를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거짓된 교리로 여기고 있었읍니다. Finney는 1824년에 장로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공적으로 시인했읍니다. 그후에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을 읽고나서 바로 응답한 것은 "이것은 가치 없다"는 말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동안에 Princeton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던 Charles Hodge와 B.B. Warfield가 Finney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운동과 끝임없이 논쟁해야 했던 것입니다. Finney의 영향이 당시의 미국 장로교회에 굉장히 많이 미쳤기 때문에, 비록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장로교회에 속했을지라도 그들은 장로

교회의 신앙고백을 철저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당시의 미국 장로교회는 더욱더 칼빈주의적 성격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1987년에 우리의 고신파가 19세기의 미국 장로교회보다 더 칼빈주의적이고 신앙고백적인 교회입니까? 우리의 목사들, 장로들, 또한 집사들을 포함하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읍니까? 저는 저자신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것을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몇년 동안에 삼학년 학생들이 졸업 구두시험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앙고백에 대해서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파는 우리의 시대안에서 참된 교회개혁을 시행하고 싶으면 먼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고백을 깊이 배우고 모든 교인들, 다시말하면 작은 아이부터 나이많은 할머니들까지 소요리문답의 아름다운 내용을 배워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신학대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공부하지 않읍니까? 신구약,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등은 공부하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교회의 목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의 내용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개혁주의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읍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πᾶσα ἡ βυυλη θεου"인데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πᾶσα η βουλὴ θεου,"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은 기록된 말씀에 속하고 있으며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성경은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옛 방법이 지금은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했읍니다.* (영어인 원어로; "it pleased the Lord... to reveal himself... and for the more sur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to commit the same to writing; *which makes the Holy scripture to be most necessary, those former ways of God's revealing his will unto his people being now ceased*").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소유하기 때문에 옛날의 예언, 기적, 그리고 계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신앙고백에서 요약함으로써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싶으면 신앙고백의 강조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들자면,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또 그의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신앙고백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요리문답의 놀라운 시작은 모든 신자가 알아야 됩니다." "문 1,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 우리 고신파의 어떤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이것을 벌써 배웠는데 앞으로 모든 교회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언약의 생활

셋째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읍니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개혁교회안에서 성경적인 언약이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한국에서 참되고 지속적인 교회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교회의 통일성, 신앙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언약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연구하며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인 언약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드시 공동체의 신앙, 즉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하는 신앙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신약의 저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란 말의 핵심성을 찾을 수 있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 말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즉, δία του κυρίου ημων Ιήσου χριστου)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즉, εἰρηωην ἑχομεν)라고 했읍니다. "누리자"라는 말보다 "누린다"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다면 "우리"라는 말도 표현된 성도간의 교제를 중요시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언약이란 가족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즉 ἡ ἐπαγγελία)너희와 너희 자녀와..."라는 말로 표현한 가족단위의 구원을 오순절 교파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사람과 그 자녀에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읍니다.

우리가 유아세례에 관해서 고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항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편, 혹은, 양편이 다 믿는 부모의 어린이들도 세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혹은, "… 받는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the infants…*are to be baptized*"로 되었기 때문에 "유아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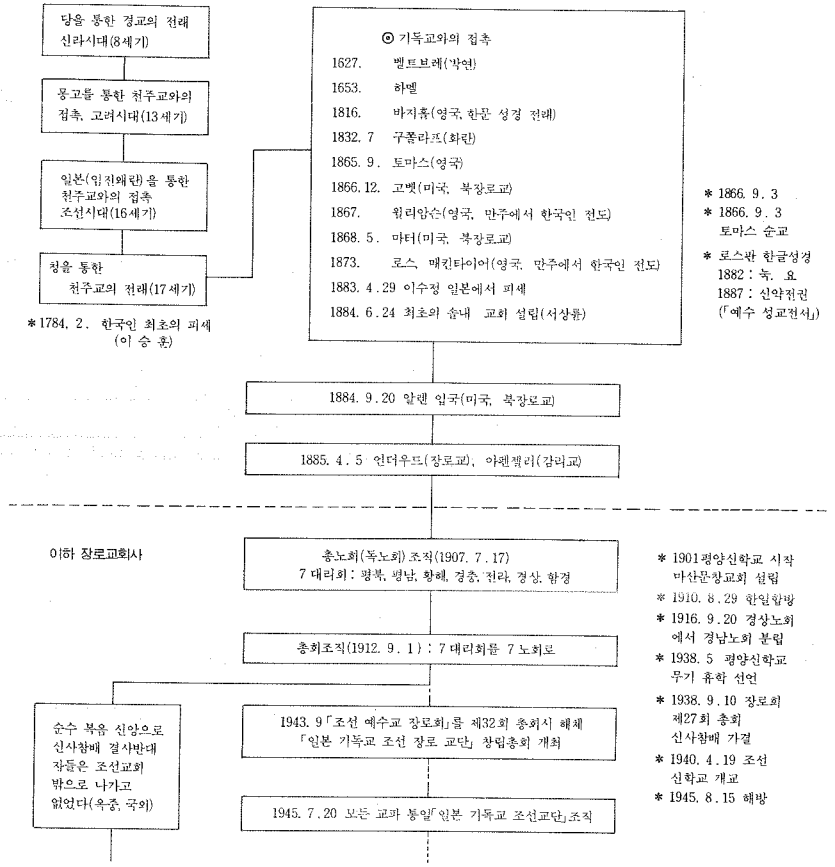
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일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엡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 말씀을 볼 때 기독교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회개혁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것은 교회제도 뿐 아니라 교육방법과 제도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은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포함한 다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학교의 교육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뿐 아니라 우리신자들의 큰 책임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바대로 교회의 개혁은 넓은 차원에서부터 가족 또는, 개인적인 차원까지 이르는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예, 그렇읍니다. 왜냐하면 어제 허순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회개혁은 이세상의 생활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파의 관계에서부터 가족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의 말씀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음으로써,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만이 참된 교회개혁은 시행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정지되었단"라는 말씀으로 다른 번역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고려신학보 제14집(1987년 11월) pp.101~112

# 한국 장로 교회사에 있어서 고려파의 기원과 발전사

박 종 칠